

태조 희망의 숲 '밀그림'

임실군, 성수산 일대 84억원 투입... 4개년 걸쳐 자연힐링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임실군이 고려왕건과 조선 이성계의 왕의 설화로 유명한 성수산 종합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첫 스타트를 끊는다.

지난 21일 임실군은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임실군의회 의원, 최성미 임실문화원장, 나종두산업인주지, 성수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지역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임실군 등 서부내륙권 지역에 지원되는 것으로 성수산 일대(247,000㎡)를 내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여 걸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자,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기체협장과 심이암 주변 역사학습 공간, 친수공간 등 자연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미 군에서는 성수산 개발을 위해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2지나해 8월에 발주해 2017년 4월에 완료했으며, 전주북문교토소유의 토지 34,908㎡를 6월 2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을 위한



임실군이 21일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건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성수산 왕의 숲 조성(72억원)과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150억원)과 연계 추진해 그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성수산을 왕의 스토리가 담긴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살려 왕의 숲 조성사업과 성수산 산림바이오힐링센터 등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전반적인 성수산 개발방향을 설정해 주민중심형 개발사업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심 군수는 용역보고회에서 "우리 지

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원과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성수산 종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구룡쟁주 명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산은 고려태조 왕건과 조선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해서 임금이 됐다던 건국설화로 유명하며, 상이암은 아홉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러고 다투는 형국의 구룡쟁주지(九龍爭主之地)의 성스러운 명당터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몇 년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KBS대하사극 '정도전'에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명산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임실=진홍철 기자

순창군 내일로 홍보대사 활동 돌입

5일간 기차 이용 전국 순회... '전북투어패스' 알려

짧은 기간으로 순창군 주요 관광지 홍보할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가 짧은 층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1일 코레일전북본부와 함께 군청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김홍식 코레일전북본부 남원관리역장 등 관계자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내일로(Rail-to) 홍보단은 코레일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국의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차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고 순창 여름 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든 홍보단이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단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차를 타고 5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어름휴가 순창에서 보내기'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순창여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순창군 내일로 홍보단은 지난 7월 14일 45여명의 홍보단 선정을 마무리 했으며 이번 행사는 발대식을 겸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캠퍼 행사다.

이날 오전 행사는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인 순창건강장수과학체험관 견학을 시작으로 영상회의실에서 공식발대식을 진행해 앞으로 순창관광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내일로 홍보단의 활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SNS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과 방동행 핑크박스 전달식을 진행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따뜻한 마음 담은 '핑크박스' 선물

남원시-한전 남원지사, 저소득층 소년 250명 생리대 지원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협약기관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와 남원 사랑희망동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동행 핑크박스(생리대)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받은 생리대는 관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50명(환가액 900만원)에게 지원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원시장(이환주),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최상철), 신일종합시스템 남원지점장(장시영), 희망동행태대표(정용관)이 참석하였다.

남원 사랑희망동행사업은 인적안전을 위하여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 할 수 있는 나눔이웃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지원을 하는 대상자는 희망동행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이상징후가 있다고 제보해준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선정 지원하는데 의미가 깊다.

또한 핑크박스(생리대)는 1인당 3개월분을 대상자 가정에 직접 택배로 발송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꼼꼼히'

남원시, 특별 감시·단속 추진

남원시는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이 빈번해지는 시기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오는 8월까지 단계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폐수·기타수질오염원 및 축산폐수 등 고의적인 무단방류, 고장에 따른 미기동 행위 등의 시설점검과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시 요천 등 주요하천에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후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부검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전관 환경과장은 "오염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고시 즉시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휴가철 감염병 주의하세요"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각종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철저한 손씻기, 모기물리지 않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마무리할 때 여행자의 건강과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을 위해 아래 2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했다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귀가 후 발열·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1330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은 끓여마시기, ▲채소와 과일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와 같은 6대 수칙을 지킨다.

/남원=유영철 기자

'강천산 환상캠핑' 빛의 향연 펼쳐진다

순창군, 내달 11일~20일 3가지 테마존 운영... 500만 관광객 시대 성큼

순창군이 빛의 숲이 만드는 140분간의 꿈 같은 '강천산 환상캠핑'을 통해 전국적 야간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다.

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강천산 환상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밤 8시부터 10시 30분간 진행되며 공원 입장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강천산 환상캠핑은 강천산 야간 명소와 사업의 성공을 접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으로 문체부 콘텐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강천산 병풍폭포를 중심으로 빛 응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에서

미디어 공연과 색다른 야간 산책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3가지 테마존으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환상의 병풍폭포 미디어파사드쇼는 병풍폭포와 개울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다양한 빛의 향연을 만든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는 테마는 환상의 캔버스 인터랙티브아트 존이다. 빛으로 그리는 압색스케치북으로 관광객이 그리는 빛의 그림이 압색 표면에 실시간으로 형상화 된다.

세 번째는 환상의 마을 티피텐트존이다. 병풍폭포구역 내 8개의 티피텐트를 만들고 다양한 증강현실 프로그램

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밤의 숲을 채우는 음악공연과 환상소, 숲에서 체험하는 환상의 타로카드, 밤에 빛나는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야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이번 강천산 환상캠핑 사업이 여름 관광객 유치는 물론 순창의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마중물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이 많이 방문해 익사이팅한 강천의 야간경관을 즐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강천산에 38억원을 투자해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순창=이양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향 식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